

# 북한의 군사적 대남 도발 가능성 검토

Online Series

2024. 1. 8. | CO 24-02

장 철 운(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북한이 2024년 1월 5일 연평도·백령도 인근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역에 200여 발의 포 사격을 단행했다. 낙탄 위치가 모두 서해 NLL 북쪽이라 우리측의 직접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평도·백령도에 거주하는 국민이 대피해야 했고, 인천에서 연평도로 향해야 하는 여객선의 운항이 통제되기도 했다. 북한은 5일 ‘총참모부 보도’를 통해 포 사격이 우리 군이 진행한 각종 훈련에 대한 “당연한 대응행동조치라고도 할 수 있다”고 강변했으나, 김정은이 2023년 12월 말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공언한 대남·통일정책 방향의 근본적 방향 전환 지시가 도발의 근본적 배경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4년 1월 6~7일에도 서해 NLL 북쪽 지역에 총 150여 발의 포 사격을 이어갔다.

김정은은 2023년 12월 말 개최된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남북관계가 더 이상 같은 민족의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된 것이 현 주소라고 주장하며 ‘2024년도 투쟁 방향’과 관련해 북한이 기존에 추진했던 대남·통일정책의 방향을 ‘강 대 강, 정면승부’라는 이른바 ‘대적투쟁’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북한과 군사적 대결을 기도할 경우, 북한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한 김정은은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한의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북한군의 강력한 군사행동’ 준비와 관련된 중요 과업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군사력의 ‘급진적 발전을 더욱 가속화해나가야’ 한다며 군수공업, 핵무기, 미사일, 우주개발, 선박공업, 무인항공, 탐지전자전, 민방위무력 등 총 8개 부문이 추진해야 하는 과업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글에서는 김정은의 언급과



과거 사례 등을 바탕으로 북한이 향후 실행할 수 있는 군사적 대남 도발 가능성을 검토한다.

### 북한의 군사적 대남 도발 판단·평가 기준

북한의 향후 군사적 대남 도발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북한의 어떠한 행위를 군사적 대남 도발 행태로 판단·평가할 것인지와 관련한 기준을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 국방부가 2022년 발간한 『2022 국방백서』를 살펴보면, 북한은 1950년대 이후부터 2022년 말까지 총 1,119회의 ‘대남 국지도발’을 자행했는데, 국방부는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을 ▲지상도발(503회) ▲해상도발(559회) ▲공중도발(52회) ▲GPS 교란(5회)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sup>1)</sup> 국방부는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이라는 표현뿐 아니라 “전면전 도발”, “핵·미사일 도발” 등의 표현도 사용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이 글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대남 도발을 큰 틀에서 국지도발과 비국지도발로 구분해 검토하고자 한다. 북한의 군사적 대남 국지도발에는 『2022 국방백서』에 나타나는 ‘대남 국지도발’의 4가지 경우(지상도발, 해상도발, 공중도발, GPS 교란)와 함께 GPS 교란처럼 남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도 포함된다.<sup>2)</sup> 비국지도발에는 남한이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영토·영해·영공 등을 북한이 직접적으로 침범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한의 안보와 한반도 정세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북한의 군사·안보적 조치, 즉 북한의 추가 핵실험 단행,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 및 장사정(방사)포 발사 등이 포함된다.<sup>3)</sup> 예를 들어, 2022년 11월 2일 북한 미사일이 동해 NLL 이남 해상에 낙탄된 경우는 국지도발에, 북한이 2023년 1월 5일 단행한 서해 NLL 이북 수역으로의 포 발사는 비국지도발에 각각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22 국방백서』에서 언급한 북한의 ‘전면전 도발’ 가능성을 검토하지는 않는다. 김정은이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남반부 전 영토 평정’을 거론했지만, 남북한의 막대한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한·미 정보자산이 북한의 작은 군사적 움직임까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감시·정찰하고 있고, 강력한 한·미 연합 전력의 북한의 ‘전면전 도발’ 가능성을 지금까지 잘 억제해 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북한이 ‘전면전 도발’을 감행할 개연성은 현재 상황에서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1) 국방부, 『202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2), p. 352.  
2) 이 글에서 전망하려는 사안이 북한의 군사적 ‘대남’ 도발이라는 점을 감안해, 북한이 남한뿐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자행하는 암호화폐 및 가상화폐 해킹은 논의에서 제외한다.  
3) 북한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동·하계 군사훈련 관련 포 사격 등의 활동은 제외한다.

##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 검토

향후 북한이 실행할 수 있는 국지도발 중에서 가장 먼저 거론할 수 있는 경우는 해상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2022년 말까지 자행한 대남 국지도발(1,119회) 가운데 해상도발(559회)이 가장 많은 비중(약 50%)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2010~2022년 북한의 전체 대남 국지도발(239회) 중에서 해상도발(209회)이 차지하는 비중(87.4%)은 압도적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해상도발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져왔는데, 북한 함선의 동·서해 NLL 침범 및 이에 따른 무력 충돌이 대표적이다. 해상에서 남북한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지상이나 공중 등 다른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은 북한이 해상도발을 감행할 때 고려사항일 수 있다.

김정은이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해군의 수중 및 수상전력을 제고” 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북한의 해상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게 하는 대목이다. 김정은이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지시한 ‘수중발사 핵전략무기’의 일종(핵무인수중공격정)일 수 있으며, 북한이 2023년 총 세 차례에 걸쳐 시험했다고 밝힌 ‘해일-1형 및 2형’을 남한 영해에까지 잠항·침투시킬 가능성, 천안함 사건(2010년)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 가능성, 북한이 1990년 대까지 종종 자행했던 반잠수정 및 잠수함의 대남 해역 침투 및 이로 인한 군사적 충돌 재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지상도발 가능성이다.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가운데 지상도발(503회)은 약 45%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북한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파기를 선언한 직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북한 병력을 다시 무장시켰고, 폭파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원하고 무장병력을 투입했다. 김정은이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 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언급한 점은 군사분계선(MDL) 인근 등에서 북한이 지상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대목이다. 그동안 북한은 MDL 인근에서의 총격을 비롯해 DMZ 내 목함지뢰 설치·폭발(2015년), 남한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핑계로 한 고사총 발사(2014년), 연평도 포격(2010년) 등 다양한 방식의 지상도발을 감행해왔다.

셋째, 공중도발 가능성이다. 공중도발(12회)은 북한이 2010~2022년 자행한 대남 국지도발 중에서 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2022년 12월 26일 북한이 소형무인기 5대를 남한 영공에 침투시키고, 일부 소형무인기는 서울 상공까지 진입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14년 3~4월에는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지에서, 동년 9월에는 백령도 인근에서, 2017년 6월에는 강원도 인제에서 북한이 침투시킨 무인기가 추락해 발견되기도



했다. 김정은은 2021년 1월 개최된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500km 전방 중심까지 정밀 정찰할 수 있는 무인정찰기들을 비롯한 정찰수단 개발”을 ‘최중대 연구사업’ 중 하나로 지시했고, 2022년 4월 25일 개최된 열병식에서는 무인기 비행이 이뤄지기도 했다.

특히, 김정은은 2023년 12월 말 개최된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무인정찰기와 다목적 무인기들이 개발”됐다고 성과를 평가하며 2024년에 추진해야 할 과업 중 하나로 “무인 항공공업 부문에서 현대전의 특성에 맞게 각종 무인 무장장비들을 개발생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로 미뤄, 북한이 향후 무인기를 적극 활용하는 공중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공군력 측면에서 남한에 비해 북한이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열세이고, 이러한 열세를 단기간 내에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북한이 향후 전투기 및 전투폭격기 등을 이용한 공중도발에 나서기보다는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입을 피해가 적으면서도 남한 사회 내에 적지 않은 혼란과 공포심을 유발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GPS 교란 가능성이다. 국방부가 집계한 2010~2022년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중에서 GPS 교란(5회)은 2.1%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김정은이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탐지전자전 부문에서 현대전의 특성에 맞게 위력한 전자전 수단들을 개발생산”이라고 지시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특히, 남한 내에서 군대뿐 아니라 민간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와 항공기, 선박 등 대부분의 이동수단이 GPS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으며, 군대에서 사용하는 각종 무기체계 역시 GPS 시스템을 바탕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GPS 교란은 남한 사회 전체와 군대에 적지 않은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다섯째,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다. 사이버 세계는 우주 영역과 함께 모든 국가가 주목하는 현재와 미래의 주요 전장 중 하나로 불리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공작세력 등이 유포하는 각종 스캠 이메일이 남한 내 주요 인사에게 보내지고, 이로 인해 주요 정보와 개인정보 등이 해킹·탈취되는 사건은 이제 언론 등에 별도로 보도되지 않을 정도로 일상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세력에 의한 랜섬웨어 유포, 디도스(DDos) 공격 등이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남한 내에서 사이버 보안 대책을 잘 수립·시행하는 등으로 인해 대규모 전산망 마비 등과 같은 혼란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와 미래의 주요 전장 중 한 부분인 사이버 세계에서 북한이 공격할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



### 북한의 비국지도발 가능성 검토

첫째, 북한의 추가 핵실험 단행 가능성이다. 북한은 2006~2017년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단행했으며,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의 일부 갱도를 복구하며 추가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완료하고 정치적 결단만 남겨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술핵 실험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전략핵 실험 가능성이다. 북한의 전술핵 실험 가능성은 제8차 노동당 대회와 김정은의 2023년 3월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 지도에서 일정하게 가능할 수 있다. 김정은은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및 전술무기화, 각이한 수단에 적용 가능한 전술핵무기 개발’ 등을 지시했다. 또한 북한은 김정은의 ‘핵무기 병기화 사업’ 지도 관련 보도를 통해 ‘화산-31’을 공개하는 동시에 이를 총 8가지 투발수단, 즉 초대형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어뢰 등에 탑재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런데 표준화된 한 종류의 핵탄두를 여러 투발수단에 탑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다. 핵탄두가 이동하는 동안 직면해야 하는 가속도와 온도, 습도 등이 투발수단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투발수단을 몇 종류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투발수단에 탑재하기 적합한 전술핵을 별도로 개발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전술핵 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전략핵 실험 가능성 역시 김정은의 발언을 근거로 일정하게 검토할 수 있다. 김정은은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초대형 핵탄두’의 생산을 지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 ‘초대형 핵탄두’는 전술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력이 강력한 이른바 ‘전략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실시한 여섯 차례의 핵실험 중에서 제4차 핵실험(2016.1.6.)과 제6차 핵실험(2017.9.3.)이 ‘수소탄’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제4차 및 제6차 핵실험 모두 수소탄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 ‘Mt’ 위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미국의 전략핵무기에 대칭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핵전력 보유를 북한이 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추가 핵실험으로 전략핵 실험을 단행함으로써 역량을 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북한의 미사일 및 장사정(방사)포 발사 가능성이다. 북한이 핵무기의 가장 유력한 투발수단으로 삼고 있는 무기체계가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 그리고 근·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사실상 다르지 않은(초)대형 방사포 등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정은도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타격 능력 고도화’, ‘핵타격 수단 다종화’ 등을 언급하며 다양한 사거리 및 종류의 미사일 개발을 지시한 바 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2021년 총 10차례(근·단거리 탄도 미사일 4차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4차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1차레,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 1차레), 2022년 총 69차레(근·단거리 탄도 미사일 51차레,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15차레, SLBM 2차레, 불명 1차레)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다.<sup>4)</sup>

필자가 각종 매체의 보도 내용을 종합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에도 총 25차레(근·단거리 탄도 미사일 11차레,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8차레, 순항 미사일 6차레)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북한은 제8차 노동당 대회 이후부터 2023년까지 총 104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단행했는데, 사거리만을 고려했을 때 남한을 타격하기에 적합한 근·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가 66차레로 63.5%에 달한다. 특히, 북한은 기존에 미사일 발사를 단행하며 사용했던 ‘시험발사’ 등과 같은 표현보다 2022년부터 ‘발사훈련’, ‘검수사격시험’, ‘위력시위사격’, ‘검열사격훈련’ 등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에 이미 진입했거나 목전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향후에도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와 함께 김정은이 미사일뿐 아니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차량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이 딸을 대동하고 ‘전략미사일 발사대차’ 생산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2024년 1월 5일 보도했는데, 북한 매체 보도 사진을 보면 이 공장에서는 액체연료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의 TEL과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의 TEL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공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김정은은 2023년 8월 초에도 장거리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TEL 생산공장을, 며칠 뒤에는 근·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TEL 생산공장을 각각 현지지도한 바 있다. TEL은 탑재된 미사일의 생존성뿐 아니라 기술적 운용성까지 제고할 수 있는 중요 미사일 발사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분석할 필요가 있다. ©KINU 2024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4) CSIS 웹사이트 참고, <[https://missilethreat.csis.org/wp-content/uploads/2022/11/NorthKorea\\_Missile\\_testing\\_update\\_11.22.22-1.jpg](https://missilethreat.csis.org/wp-content/uploads/2022/11/NorthKorea_Missile_testing_update_11.22.22-1.jpg)> (검색일: 2024.1.5.). 이 글에서 ‘근·단거리 탄도 미사일’에는 초대형 방사포도 포함된다.